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8. 10.(목) 06:00 < 8.10.(목) 석간 > 배포 2023. 8. 9.(수)

태풍 북상, 전력설비 안전관리에 만전

- 강경성 2차관, 발전소 태풍 대응상황 긴급 점검

주초인 8. 7(월) 17시에 최대전력수요 93.6GW를 기록하면서 전력 당국이 폭염 대비로 바빴는데, 어제부터는 태풍에 따른 전력설비 관리로 분주하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해 북상하면서 발전소, 송전선로 등 전력설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오늘 오전 세종복합발전소(530MW 규모)에 방문하여 태풍 피해 예방 및 핵심 전력설비 관리상황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사전 안전조치 및 취약시설 점검 현황, 비상 대응 체계, 고장 시 복구계획 등 태풍 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태풍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강 차관은 "기존의 관행적 점검에서 벗어나 이중, 삼중으로 꼼꼼하게 사전 대비해야 하며, 만에 하나 설비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벽부터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만큼, 전 직원이 지침(매뉴얼)을 숙지하고 비상 근무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하고, "태풍이 지나고 나면 전력수요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바, 여름철 대책 기간 끝까지 전력수요와 공급 상황을 자세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100GW 이상의 충분한 전력공급능력을 이미 확보해 두었지만, 태풍 이후에도 더위가 이어질 때를 대비해 여름철 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5일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전력수요와 공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손민경 (044-203-388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현장점검 개요**

❖ 태풍 북상에 대비하여 **핵심설비 재난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비상 근무하는 현장직원 격려 및 **안정적 설비 운영** 당부

□ 행사 개요(안)

○ 일　　시 : **'23. 8. 10.(목) 10:00~10:40** (40분)

○ 장　　소 : **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세종시 금송로 625)

○ 참 석 자 : **2차관**, 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본부장, 발전운영실장

□ 세부 계획(안)

일 시	내 용	비 고
10:00 -	도착 및 이동	(2층 회의실)
10:00 ~ 10:05 (5')	모두 발언	2차관
10:05 ~ 10:15 (10')	태풍 북상 준비현황 보고	중부발전 박경우 본부장
10:15 ~ 10:18 (3')	이동	
10:18 ~ 10:28 (10')	중앙제어실 시찰 및 근무자 격려	(4층 중앙제어실)
10:28 ~ 10:40 (7')	증기터빈 현장설비 시찰	(3층 증기터빈)